

(토론1)

임진왜란을 대비한 토정 선생을 아십니까?

충남대학교

교수 황인덕

토정 선생은 조선조의 한 이채로운 인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아산 현감을 잠시 지낸 것으로 하여 아산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산의 대표적인 두 역사적 인물이 충무공과 이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무공이 왜란을 막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토정이 왜란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고자 애쓴 사실은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란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하여 경각시키고, 인물을 찾아내고 교육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보인 분이 바로 토정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표나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임란 전에 토정이고 임란 후에 충무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산의 두 위대한 인물로 토정과 충무공을 병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충무공이 백의종군하여 남해로 내려가는 행로 600리길을 답사를 통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정의 국토 기행 경로를 찾아내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일도 한 번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토정의 문집에는 본인이 쓴 글이 일곱 편밖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우암은 이에 대하여 “觀鳳一羽足以知五彩之成章”이라고 호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 토정이 글재주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실천을 위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토정은 남다른 국토 여행가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실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천을 하자면 국토를 알고 지역을 알고 지형을 알고 도로를 알고 민생을 알고 자원을 알고 경제를 알고 인재를 알아야 하겠기에 이 지방 저 지역 천지사방 헤매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외양은 늘 걸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재에 조용히 앉아 성리학 담론이나 따지던 일반 책상물림 유생들과는 생각이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정을 알자면 문헌 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지 답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족적이 스쳐간 현지를 두루 찾아내고 거기에 전하는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어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관심을 두고 그동안 현지를 찾아 더듬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해왔고, 얼마간 성과를 얻어 이를 토대로 몇 편의 논문을 엮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도 없이 토정 선생의 발자취를 제대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토정의 조카 아계는 숙부의 여행에 대하여 “배를 잘 부려 넓은 바다 밟기를 평지와 같이 했고, 국내의 산천은 아무리 멀어도 아니 간 데가 없으며, 아무리 험해도 안 건넌 데가 없었다. 혹은 여러 해가 되도록 어디로 갔었는지 알지 못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을 무대로 아니 간 데 없이 다녔으니 그의 발자취를 더듬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님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토정의 진면을 알자면 더욱 그의 이러한 국토여행의 궤적을 밝히는 것이 긴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천유학자”로서의 그를 생생한 모습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면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